소리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포스코는 창립 이래 인간존중의 전통과 경영이념인 지속가능경영을 바탕으로 소외이웃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 나눔, 국가 백년대계인 인재 양성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 가는 훈훈한 세상

포스코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그룹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포항 및 광양 지역의 마을, 학교, 사회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포스코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 및 자매결연 활동을 적극 장려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참여의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또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토요일에 활동테마가 있는 자원봉사의 날인 나눔의 토요일 운영, 매년 2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 자원봉사 이벤트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사업장 소재지인 포항, 광양 및 서울 인근 지역의 저소득 소외 계층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340개의 봉사그룹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다른 한 축인 자매결연 활동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12월말 현재 224개의 마을,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 공동시설 보수, 의료봉사, 특산물 판매, 마을 행사 참여, 경로 및 장학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매결연 활동 내용도 발전하여 1998년 이후 물질적,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웃음 가득한 세상,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

포스코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장 소재지인 포항, 광양 및 서울에 전문 공연장을 운영하여 고품격의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등과 우수 영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회화, 서예, 사진, 도예 등 수준 높은 예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발'은 음악을 통해 기업과 대학, 일반인과의 만남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낳으며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2004년부터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광양만 대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포스코는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학술교육 부문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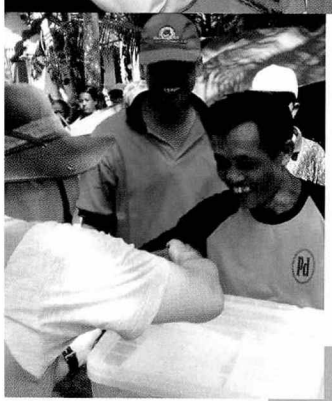
이를 위해 1986년 12월 포스텍을 설립한 이후 2005년까지 7272여 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포스텍은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및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BT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60여 개의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학사 운영 등 앞선 교육 연구 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71년 1월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하여 1990년 이후 5,690여 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개 학교를 운영, 8만 2,969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포스코의 '희망나눔활동'

포스코는 포스코장학회와 학교법인, 포스코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2005년 9월 기존의 포스코장학회를 확대·개편해 포스코청암재단을 출범시켰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종래 지역사회 장학사업에서 학술, 연구, 시상,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사업범위를 넓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포스코는 나눔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와 출자사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04,5년 각 7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데 이어 2006년에는 80억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240세대에 월 3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 '포스코 나눔의 집' 3곳을 개설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는 우리사회의 나눔과 순환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4년 3월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임직원들이 기증한 재활용품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한 이후 범포스코 차원의 나눔활동으로 확대해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38만 9천여점의 재활용품을 기증했고 판매수익금 4억2천여 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포스코는 NGO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과 재난대비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해 태풍 피해를 본 울릉도와 강원도 폭우피해지역에 구호봉사팀을 파견하고 구호 키트를 긴급 지원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함께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기아체험 24시간', 해비타트의 '사랑의집짓기,수리', 라파엘클리닉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오리사주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구순구개열 어린이 40여명을 무료로 시술하는 사업을 지원했고 국제해비타트와 함께 뭄바이와 오리사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전개 100여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축비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의 글로벌 봉사활동은 인도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포스코는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의약품과 이불, 속옷 등 생필품이 담긴 구호키트 1000세트를 제작·전달했으며, 다일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지역 안면장애 아동을 초청하고 성형수술을 받게하는 등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에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새해에도 포스코 고유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익적 역할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출자사와 재단을 아우르는 범포스코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의 글로벌 성장에 걸맞는 해외사회봉사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W*